

## 사립학교 비리 교원 교육계 퇴출 제도 절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도, 후보자 신청 접수

추천기간은 내일부터

전북도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후보자를 접수한다.

지난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도민의 추천을 받은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추천 대상은 경제와 문화예술, 체육 등 8개 분야에서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도민이면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기간은 오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 자체행정과 및 각 시·군(행정지원·총무·행정과)을 통해 추천하면 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지금까지 총131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도내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우리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을 추천하는 자리로 한해에 분야별 1명씩만 선발하는 아주 영예로운 상이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전북지역 이번주

요란한 장맛비 많아

오늘 오후에 비올 전망

기온은 예년보다 낮아

전북지역은 이번주(20~26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는 날이 많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20일 월요일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에 비가 오겠고 22~23일(수·목요일)과 26일(일요일)에도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예년(최저 17~20도, 최고 26~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며 강수량은 예년(5~10mm)보다 많은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해상에서 22~23일과 27일에 1.0~3.0m로 높겠다.

기상청은 "예보 기간 동안 장마전선의 남북진동에 따라 강수 구역의 변동 가능성이 크겠다"면서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우 기자

### 심층진단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 관련기사 2면, 3면

지난해 전국 교육계를 강타했던 완주 한국계입학교에서의 각종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던 김승환 교육감의 목소리를 찾아들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이후 사립학교 비리와 인사에 대한 비판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관련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내 부정비리와 연루된 교원은 교육계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원하기만 하다.

사학이라는 기득권 속 일부 사립마피아를 들여다본다.

교내 백일장 성적조작 교사 해당 법인 경고 처분에 그쳐 장기간 폭력 일삼은 교사도 파면요구 목살 정적 2월로 감경도교육청, 학생 폭력 고발에도 체벌·욕설 여전히 이뤄져

▲사례 1. 교내 백일장 성적조작 교사, 벌금 수 백만 원 판결임에도 슬랑망이 처분에 그쳐

지난 2014년 4월 도내 A고등학교에서 개최된 백일장 대회에서 B교사는 1등 학생을 8등으로, 4등인 학생을 7등으로 순위를 변경시키는 등 위계로 학교장의 백일장 수상자 선정 및 시상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 부터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해당 법인에서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교장은 "당초 담당 선생의 징계 과정에서 체제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교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일부 교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례 2. 장기간 폭력과 폭언 일삼아 파면 징계 받은 교사, 법인서 정적으로 감경

2013년 10월 도내 일부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숙제 등을 해오지 않자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앞도려뻐 쳐서 시키고 발로 해당학생의 배와 발을 차는 등 학생들에게 반복적 폭행과 폭언을 했던 A교사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일이 커지면서 도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해 A교사를 △직무상 의무위반 및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폭력·폭언 교사 상담관련 감압적 행위와 학교폭

력 및 가해사실 공개 등)으로 파면할 것을 해당 법인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적2월'로 감경 의결했다.

감경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내놓지 않았다.

해당 법인은 도교육청의 감사사항이 모두 사실로 판단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그렇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례 3. 도교육청, 학생 폭력 고발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도내 한 사립고 교사 2명을 지난해 9월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교사는 성적이 떨어졌거나 등급이 낮았다는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상습적으로 학생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때렸다.

'사랑의 때'란 이름으로 회초리 등 각종 도구를 이용한데다 뺨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일도 흔했다.

짚은 체벌에 한 학생이 우울증에 걸려 자퇴를 요구하다 전학을 가는 일도 있었지만 체벌과 욕설은 멈추지 않았다.

학부모의 항의도 무시했다.

해당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생활지도의 하나로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과 대상까지 정해놓았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조사 보고서에서 "체벌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이 특징이다. 언제, 누구를, 얼마나 때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상적이었다"고 적시했다. /고민형 기자



"우리들의 상징을 손가락으로"

제15회 전북도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 전주비올센터 2층에서 치러졌다. 본사 조봉성 대표와 김승근 부회장이 금상을 차지한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의 '글로로' 팀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 세계 잼버리 유치... 도-도교육청 온도차

도, 해외 돌며 유치전에 사활 교육청 지원 움직임 없어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와 관련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에 유치하기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북도와 달리 전북도교육청은 뜸뚓미지근한 반응이다.

지난 1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세계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하기위한 노력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새만금 유치단은 남미와 유럽·아프리카 등을 돌며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 연맹·새만금개발청·부안군 등도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북도는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도 교육

청에서는 아직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이로인해 전북도는 도 교육청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의 경우 세계 잼버리가 청소년(학생)을 위한 행사인데, 도 교육청이 업무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소이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도 고위간부 등이 김승환 교육감에게 잼버리 유치와 관련된 내용 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는 최근 우회적으로 도 교육청이 아닌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부안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세계 잼버리 유치와 관련해 도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현재까지 없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와달리 도 교육청은 '전북도로부터 공식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일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세계 잼버리와 관련해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면서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로 각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진다. 현재 전북도와 폴란드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영수 기자

### ▶ 매일 INDEX

4면 도의회 하반기 의정단 표결 가능성

제10대 전북도의회 하반기 의정단 등이 표결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6면 도내 중소형 휴대폰 매장 업장 '울상'

최근 단통법 시행 이후 도내 중소 휴대폰 매장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12면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성료

지난 18일 열린 제15회 전북도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Korea Be Inspired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 '휴양하기 좋은 섬 30곳' 선정  
해양수산부 '가고싶은 소규모 해수욕장' 선정  
CNN '한국의 아름다운 섬' 선정

전라북도 군산 Dream Hub GUNSAN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놀던 곳이라 하여 선유도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섬에서의 달콤한 휴식  
7월 2일, 선유도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